

북한개발소식

2026 FEB

02

통권 244호

이달의 주제

2026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2화)

북한뉴스

김주애, 선대 안치 금수산궁전 첫 참배...
김정은 대신 정중양에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6 FEB

이달의 주제 :

2026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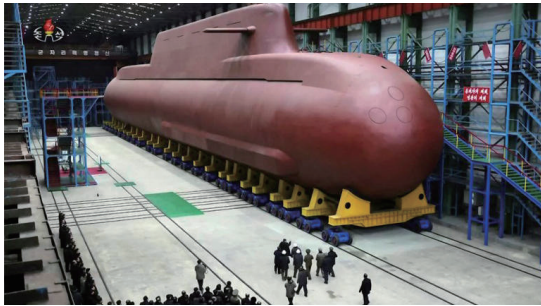
- 권두칼럼** **01** 2026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 칼럼_1** **09** 최경희_ 결빙(結氷)의 시대:
북한 '외화내빈(外華內貧)' 현상과 김정은식 실증주의 생존 전략
- 칼럼_2** **16** 정은찬_ 2026년 북한 전망
- 칼럼_3** **22** 오일환_ 2026년 북한 전망: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 탈북민 수기** **31**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2화)
- 북한뉴스** **35** 김주애, 선대 안치 금수산궁전 첫 참배... 김정은 대신 정중앙에 외
- 서평** **37**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금고 - 노동당 39호실장 전일춘 딸과 사위 증언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행보가 더욱 눈에 띄는 요즘이다. 매년 북한은 전원회의 결과 발표나 신년사 등을 통해 자신의 신년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렇지만 올해는 전원회의가 12월 중순에 비교적 짧게 진행되면서 의미 있는 결과 발표 없이 종료되었고, 신년사 형식의 발표도 없었다. 대신 올해 예정된 제9차 당대회 개최를 맞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올 한 해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어떤 이슈들을 살피고 기도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2026년 북한의 행보에 대한 전망을 다양한 관련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2026년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제9차 당대회 개최: 제8차 당대회 결산과 새로운 전략 제시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 강령 및 규약 제정, 최고위 간부 선출 등 국가의 중요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회의이다. 당대회는 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오랜 기간 열리지 않다가 김정은이 집권 하면서 36년 만인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5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북한은 매년 해오던 신년 발표도 생략하면서 제9차 당대회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을 이행하고 성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4일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월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부분별로 살펴보면 군사 부분에서는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8차 당대회 당시 북한은 ① 극초음속 무기 개발, ② 초대형 핵탄두 생산, ③ 15,000km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④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⑤ 핵잠수함 및 SLBM을 전략무기 5대 과업으로 제시하며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각각의 목

표 모두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과업이지만 북한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왔다. 특히 고체연료에 기반하여 화성-18형과 19형이 개발되었는데, 이 중에 화성-19형에 대해서는 “최종 완결판 ICBM”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난 10월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는 화성-20형을 공개하였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3-31 개량형” 등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개발, 시험했다. 또한 수중 핵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9월에는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을 진행했으며, 2026년 4월과 6월에는 각각 5,000톤급 최현호와 강건호를 진수했다. 지난 성탄절에는 8,700톤급 핵 추진 전략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이러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북한이 보여주는 가시적인 군사적 성과의 이면에는 물음표가 있다. 공개된 상당수의 무기 체계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정상 작동 및 배치에는 여러 시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5대 과업으로 제시된 목록 중 초대형 핵탄두 생산이나 SLBM 개발 등은 아직 뚜렷한 진전이 관찰되지 않았다. 23년 진수식을 가진 ‘김군옥 영웅함’은 아직 출항의 정황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을 현지 지도하면서 9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와 상용 무력(재래식 무기)의 병진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9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제시되고 기존부터 추진해 왔던 핵·미사일 개발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가 계속해서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¹⁾ 또한 북한은 이번 러시아 전쟁 참전을 계기로 탱크 전력의 현대화나 양산 가능한 드론 개발, 전자전 능력의 확대 및 배치 등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²⁾

경제 부분에서도 북한은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목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자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북한은 지난 5년 중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제8차 당대회 당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언급할 만큼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상당히 악화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제8차 당대회에서는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는 자립 경제 노선이 강조되었으며, 발표된 5개년 계획도 외형적 성장보다는 경제 구조 정비 및 생산 기반 보강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이 지속 추진되었다.

이후에도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와 대북 제재 장기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북한에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어준 요소는 바로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부터 3% 이상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북·중 무역이 점차 정상화되는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이 북한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의 제조업은 7% 성장했으며, 특히 중화학 공업은 10.7%나 급증했는데, 러시아로 공급되는 군수 물자의 생산 활성화에 따른 성장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방산 부분 활성화에 힘입어 금속, 기계, 화학 제품 생산이 전체 GDP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³⁾

그렇지만 이러한 수치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다. 방산 공업으로 인한 경제 성장은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민생과 직결된 환율, 물가는 2024년 이후 상당히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상품 유통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그리고 고강도 코로나 방역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방과 농촌을 중심으로 불만을 증폭시켰다. 5개년 계획의 후반부에 강조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이러한 누적된 사회적 불안정을 완화하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⁴⁾



1) 이호령 (2025), “북한 8차 당대회 최대 성과와 9차 당대회 전망”, 동아시아연구원 EAI, Global NK (2025.12.05.), pp. 5-6.

2) 피터 워드 (2025), “[정세전망 2026-특집호-제4호] 2026년 북한 국내 정세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5.12.11.), pp. 4-5.

3) 최은주 (2025), “[정세전망 2026-특집호-제3호] 2025년 북한 경제 평가와 2026년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5.12.11.), p. 2.

4) 정승호 (2025), “[북한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②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정책 조정과정”, 동아시아연구원 EAI, Global NK (2025.12.31.), pp.12-13.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하여 기존 ‘정비·보강’ 중심에서 더 나아가 성장 목표를 내세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⁵⁾ 하지만 지방 발전 정책이 단순히 공장 건설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가동될 것인지, 북·중 관계 개선이 경제 부분의 유의미한 개선으로 이어지고 북러 협력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통제와 유연성 사이에서 정책적인 균형이 이루어질지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 2026년 북한의 경제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으로 김정은의 위상 강화와 우상화 확대,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 논리 강화 등이 주목된다. 적극적인 우상화의 결과로 현재 김정은은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을 넘어서는 현존하는 수령으로의 위상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⁶⁾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김정은을 김일성과 대비되는 제2의 창업 수령으로 자리매김하고, 그의 권위를 ‘준(準) 신정체제’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⁷⁾ 이런 맥락에서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이나 핵 무력 건설 등 김정은의 노선과 정책을 반영하여 그의 위상을 높이고, 사상적으로는 김정은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련된 연구와 학습이 독려하는 등 김정은의 유일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절대적인 수령으로서의 우상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⁸⁾

또한 제9차 당 대회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명문화와 제도적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이야기하는 근거로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즉 유엔 동시 가입을 국제사회가 남북을 두 개의 개별 국가로 인정한 증거로 제시하고, 정전협정 이후 남북은 전쟁 중인 두 교전국으로 대치하는 타국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이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은 적대적 두 국가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드린 것뿐이며, 세계 역사상 이토록 적대적인 두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없으며, 한쪽이 없어져야만 하는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주민들에게 주입하고 있다.⁹⁾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이 일시적인 전략이 아닌 근본적인 노선의 변화임을 천명하고 그동안 ‘통일’과 ‘민족’에 익숙한 주민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방향성은 당대회나 이어질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한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비록 ‘적대적 두 국가’라는 표현을 직접 삽입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를 반영하여 남북 관계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 식의 제도화, 명문화로 이어질 전망이다.¹⁰⁾



〈2022년 10월 연포은실농장에 설치된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 이 벽화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모자이크 벽화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대표적 우상화 조형물로 꼽힌다.〉

혼란한 국제 정세와 북한의 대외 관계 전망

‘적대적 두 국가’의 고착화는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적 구도의 강화라는 북한의 대외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간 북한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상을 상승시켰다. 북한은 앞으로도 ‘신냉전 및 다극화 질서’를 적극 활용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중·러 밀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 예상되며, 제9차 당대회에서 이러한 북한의 대외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및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확대되는 국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오히려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¹¹⁾ 북한은 이미 수십 년간 자신을 국제 체제로부터 고립시켜 왔기 때문에 공급망 단절이나 국제질서 쇠퇴가 별다른 타격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질서의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되면서,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¹²⁾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나 규범이 약화하는 경향 속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과 제재의 영향이 줄어드는 효과도 누리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2026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전보다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언급이 빠지는 등 러·우전쟁, 중동 분쟁,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등 북중미 이슈, 마·중 경쟁 등의 여러 이슈가 부상하면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낮춘

5) 정승호 (2025), 앞의 글, p. 14.

6) 통일연구원, 「2026 한반도 정세전망」, 통일연구원 연례정세보고서 2025, p. 41.

7) 아산정책연구원, 「ASAN 국제전망 2026 무질서의 세계」, 아산정책연구원 (2025년 12월), p. 45.

8) 통일연구원, 앞의 책, pp. 48-49.

9) 위의 책, pp. 10-11.

10) 위의 책, p. 48.

11) 아산정책연구원 (2026), “심화되는 무질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2026-01 (2026.01.02.), p. 23.

12) 정성윤(2025), “북핵 정세 평가와 2026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5-41 (2025.12.12.), p. 2.

것으로 평가된다.¹³⁾ 북한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뒷배를 확보한 상황에서 지난 하노이 회담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보니 확실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북미 대화 고착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전략적 우위를 굳히고, 미국은 이를 현상 유지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구조적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양측이 당분간 극단적 대치를 피하는 현상 관리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다.¹⁴⁾ 다만 올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등의 이벤트를 계기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¹⁵⁾

최근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 북·중·러 관계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제재 국면 속에서 숨통을 트려는 ‘안러경중(安俄經中)’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⁶⁾ 현재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과 에너지, 식량을 지원받는 상호 의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첨단 무기 기술을 지원받아 핵 무력 증강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에 활용할 것이다. 다만 러·우전쟁이 머지않은 시기에 종결된다면 양국 간 이해관계는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¹⁷⁾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러시아 특수가 끝날 경우에 대비해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북한을 미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고자 한다.¹⁸⁾ 이런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북·중 관계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양국 관계에서는 불협화음이 발견된다. 중국은 북한의 제한 없는 핵 고도화나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등을 지지하지 않고 한반도의 불안정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전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미세하게 조정, 관리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북한에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 북한 언론이 신년 연하장 발송 목록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주고받은 서신은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보도했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름 없이 직함만 베트남,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등 제3세계국가들과 같이 짧게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

는데, 김정은의 대중 불만이 반영된 보도라는 해석이 나온다.¹⁹⁾

결론

앞서 살펴본 올해 북한의 행보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제2의 창업 수령으로서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할 것이며, 이와 연관된 사상 통제와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적대적 두 국가의 제도화에 힘이 실리며, 군사적으로는 기존 핵 무력 체계 발전과 전략 무기 고도화,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등에 더해 드론 등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에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관리적 입장에서 벗어나 성장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고 지방발전과 민생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겠지만, 중앙집권적 통제와 자력갱생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안러경중의 전략을 취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전술적인 외교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 해 예상되는 북한의 행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마주하게 한다. 먼저 강화되는 지도자 우상화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활동이 더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근래에 보고되고 있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사상 문화 통제 정책이 앞으로도 완화된다고는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그 속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역시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당국의 행태가 북한의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새해에도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꾸준한 기도가 요청된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도 기도의 제목이다. 지난 시기 북한은 양곡판매소 운영이나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등 나름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해 왔지만 효과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새해에도 북한의 민생 경제가 큰 폭의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 경제가 수적으로는 회복세이긴 하지만, 늘어난 국가의 총생산량은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핵과 무기 체계 개발 등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 주민들에 대한 동원 체제 강화로 노력 부담과 사회적 과제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으로 대표되는 비공식 부분의 통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생계유지 공간의

13) 위의 글, pp. 2-3.

14) 통일연구원, 앞의 책, p. 68.

15) “[2026전망] 김정은, 올해는 대화 나오나…트럼프와 재회여부 주목”, 연합뉴스 (2025.12.26.),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4069300504>>

16) ‘중·러 反美연대’ 밀착한 김정은…북한판 ‘안러경중’ 행보, 한국경제 (2025.09.0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0282481>>

17) 박정진 (2025), “[Global NK 스페셜리포트]④ 북한 5개년 계획의 결과와 새로운 외교전략의 모색: 제9차 당대회 전망과 ‘경주 이니셔티브’의 함의, 동아시아연구원 EAI, Global NK (2025.12.31.), pp. 8-9.

18) 유현정 (2025), “전승철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우너 INSS전략보고No. 368 (2025.12.), pp. 2-7.

19) “北김정은, 시진핑에 연하장…이름도 없이 다른 나라와 묶어 보도(종합)”, 연합뉴스 (2026.01.18.),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8004851504>>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들도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공장들이 실제 가동에는 어려움을 겪는 정황이 관찰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²⁰⁾ 그간 급등한 물가와 환율이 새해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물음표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와 우려를 고려할 때 북한의 서민들, 특별히 지방과 농촌지역, 그 외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한반도 평화 역시 올해에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특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 고착화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강화하는 모습은 앞으로의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핵 보유와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대되었던 북미 대화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고 북한의 핵 폐기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하지만 러·우 전쟁 종전 이후의 북러 관계의 변화, 개선되는 와중에도 관찰되는 북·중 관계에서의 불협화음, 4월 트럼프 방중이나 11월 미 중간선거 등 여러 이벤트 속에서 북미 대화의 성사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여전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안정화되고, 각 국가 간의 여러 변수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더 나아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보이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대외적으로는 분쟁과 대결의 구도를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는 이상화를 강화하며 강한 통제를 이어가는, 올 한 해 예상되는 북한의 노선은 우리가 기대하는 한반도의 평화나 신앙의 자유 증진 등 주민들에 대한 억압의 완화와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러한 전략이 당장은 북한 당국이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선택지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옳은 방향인지는 의문스럽다. 특히 북한의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이 겪을 억압과 고통이 경감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심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답임을,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암 5:14),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겔 18:21-23). 올 한 해가 북한의 방향성에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북한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정의와 공의의 길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

20) 아산정책연구원, 「ASAN 국제전망 2026 무질서의 세계」, 아산정책연구원 (2025년 12월), p. 46.

칼럼 1

결빙(結氷)의 시대: 북한 ‘외화내빈(外華內貧)’ 현상과 김정은식 실증주의 생존 전략

최 경 희 ((사)SAND연구소장)

1. 들어가며

2026년은 북한 정권에 있어 단순한 연대기적 의미를 넘어, 김정은 체제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시험받는 결정적 분수령(Watershed)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 경축 연설에서 2025년의 성과를 ‘경쟁적 균형’의 확보로 자평하며 체제 존엄의 격상을 선언했다. 이는 화려한 수사(修辭) 이면에 감춰진 위기감을 역설적으로 방증한 셈이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와 제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의 독자적 리더십을 신격화의 반열에 올리려 시도하고 있으나, 체제 불안정성을 은폐하기 위한 ‘외화내빈’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려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현실은 자원의 한계와 국제적 제재, 그리고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내부 균열이라는 다층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한 ‘공세적 개입군’으로의 군사적 변모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기반으로 한 요새화 전략은 김정은식 생존 모델의 핵심적 축을 형성한다.

이 글은 이러한 행보를 성과의 입증(Proof)과 위협에 기인한 공포(Fear)의 상충 과정으로 정립한다. 2026년 북한 정세의 핵심 동학을 ‘외화내빈(外華內貧)’의 모순으로 상정하고, 김정은 정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실

증주의적 통치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특히 군사적 성격화, 경제적 전시 행정, 사회적 공포 정치가 맞물리며 형성되는 '요새 국가(Fortress State)'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북한 체제가 직면한 구조적 변동과 김정은 정권의 통치 담론을 심층 분석한다.

2. 군사적 변모: '해외작전부대'와 공세적 개입주의의 대두

1) 파병의 공식화와 군사적 성역화(Sacralization)

북한의 러·우전 파병은 단순한 병력 지원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 안보 전략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북한은 파병 부대를 '해외작전부대'로 명명하며 그 존재를 공식화했는데, 이는 북한군을 한반도 중심의 방어형 군대에서 탈피시켜 국제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공세적 개입군(Expeditionary Force)'으로 재정의 하려는 포석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군 해외 작전 부대 국가 표창식에서 전사자들 사진에 영웅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파병의 성격을 단순한 외화벌이 목적의 용병이 아닌, '합법적 동맹에 기초한 국제 정의 수호'로 재 정의하는 논리는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손실에 대한 책임론을 원천 차단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동시에 이는 '북·러 조약 제4조'에 명시된 상호 군사 원조 의무의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동맹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한다. 나아가 파병 가족을 평양으로 초

청해 김정은과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등 파격적인 예우를 통해 '감성 통치'를 매개로 내부 동요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파병을 '국가적 숭고함'으로 승화시키는 체제 결속의 기제로 작동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 현대전 실전 데이터 확보와 군사 교리의 재편

전문가들은 북한군은 이번 파병을 통해 현대전의 중추인 드론 및 무인기 운용, 고도화된 전자전(EW) 대응 역량,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효용성 등에 관한 핵심 데이터를 축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이는 북한의 군사 교리를 과거의 '비대칭 억제' 수준을 넘어, 축적된 실전 경험에 기반한 '능동

적·실전적 공세'로 진화시키는 결정적 촉매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첨단 군사 기술 및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 수뇌부의 작전 지휘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상수로 두는 '확장된 안보 담보'를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군사적 변모는 동북아의 기존 안보 지형을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3. 경제적 실증주의와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심화

1) 성과주의적 가시성을 통한 '정치적 효능감'의 주입

최근 들어 김정은의 통치 방식은 추상적인 공산주의 교조주의에서 탈피하여,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경제적 실증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장기화된 국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이념적 구호만으로는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신년 연설에서 "국제무대에서 우승의 단상에 공화국기를 휘날린 나 어린 처녀축구선수들이" U-17 및 U-20 여자 월드컵 우승과 같은 국제 스포츠 성과를 국가적 자긍심으로 치환하고, 평양 화성지구 및 전위거리의 대규모 고층 살림집 건설을 체제 우월성의 실체적 증거로 제시한다. 이러한 '승리 서사의 시각화'는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정치적 효능감을 주입하며,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평양 및 특정 특권층에 집중됨에 따라, 평양과 지방 간의 소득 및 인프라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2)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구조적 착취의 모순

김정은이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지방 공장을 건설하여 10년 내 전국 수준을 격상시키겠다는 야심 찬 기획이나, 시행 3년 차인 2026년에 이르러 그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은 '중앙의 통제'와 '재정적 방임'의 충돌에 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같은 표본 기업소의 성과를 전국에 이식하려는 시도는 외형적인 현대화를 지향하지만, 정작 필요한 원자재, 전력, 설비 도입을 위한 중앙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결국 김정은은 '자력갱생'과



〈북한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1월 17일)을 맞아 발행한 기념우표〉

‘현지 해결형’ 원칙을 내세워 지방 단위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 주민의 노동력과 자원을 무리하게 수탈하는 약탈 구조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 건물이라는 ‘외화(外華)’와, 원료 부족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그리고 주민의 극심한 빈곤이라는 ‘내빈(內貧)’이 공존하는 기형적 경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성 행정사업에 따른 민심의 피로도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체제의 하부 지지 기반을 잠식하는 잠재적 폭발력을 지닌 위기 리스크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4. 사회·통제적 역동성: ‘마두로 쇼크’와 공포의 제도화

1) 외부 독재 정권의 위기와 내부 방어 기제의 고착화

새해 벽두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겪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대규모 민중 시위는 북한 지도부에 실존적 경각심을 일깨운, 이른바 ‘마두로 쇼크(Maduro Shock)’로 작용했다. 이는 단순한 타국의 사례를 넘어, 독재의 세습과 경제난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북한 체제에 강력한 반면교사가 되었다.

김정은은 이를 계기로 호위사령부를 포함한 내부 경호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고, 고위 관료들에 대한 감시 체계를 다중화하는 등 ‘극단적 보안의 상설화’를 꾀하고 있다. 2026년 북한은 엘리트 계층 내부에 잠재된 불충(不忠)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사상 검증을 더욱 가혹하게 제도화할 것이며, 이러한 ‘공포의 정치’는 관료 사회의 극심한 부동자세와 경직성을 초래하여 정책 유연성을 마비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2) 사회적 세대 간 가치관 충돌과 통제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또 다른 내부 위협은 ‘장마당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의식 변화이다. 이들은 국가의 배급제 붕괴 이후 자생적 시장 경제에서 성장하며, 정권이 요구하는 무조건적 충성보다 실질적 ‘생존과 실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한다.

김정은은 얼마 전 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청년교양의 총적 목표는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가치관이 바뀌는 청년들을 충정과 헌신성으로 포섭하려는 시도인 한편, 대외적으로는 외부 문화 유입을 ‘비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여 방어적 기제를

강화할 명분으로 작용한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동원한 가혹한 법적 처벌은 청년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데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외부 정보 유입으로 형성된 대중적 욕망과 정권의 억압적 통제 사이의 ‘인지적 불협화음’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5. 남북 관계의 단절: ‘적대적 두 국가론’과 요새화 전략의 고착화

1) 민족 담론의 폐기와 법적·영토적 절연(Isolation)

2026년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곡점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정세를 지탱해 온 ‘민족’과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의 종언이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헌법 내 ‘평화통일’ 관련 조항을 영구 삭제하고,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명문화하는 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탈민족주의적 선언’은 남한의 문화적·사상적 유입을 ‘침략’으로 규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며, 내부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감을 원천 차단하려는 고도의 심리 통제 기제로 될 것이다. 이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물리적 장벽 구축과 결합하여, 남북 간 접점을 소거하는 ‘신(新)요새화 전략’의 완성을 의미한다.

나아가 통일 담론의 폐기는 북한 내부의 ‘역사적 정통성(Historical Legitimacy)’을 재정의하는 정치공학적 시도로 이어진다. 과거의 통일 담론이 남북의 연결성을 전제로 한 ‘미완의 과업’이었다면, 이제 북한은 남한을 철저히 ‘타자화(Othering)’함으로써 내부 결속의 동력을 민족적 공통점이 아닌 적대적 대립에서 찾으려 한다. 이는 주민들이 품어온 남한에 대한 동경이나 경제적 환상을 ‘적대국에 대한 이적행위’로 규정하여 처벌의 문턱을 낮추는 법적 장치가 되며,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체제 이완을 방지하는 강력한 체제 방벽으로 기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족’이라는 유연한 연결 고리를 끊어낸 자리에 ‘공포 기반의 절대 충성’과 ‘우리국가제일주의’라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주입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외부 정세의 변화나 대남 관계의 변동성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항구적 분단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권 생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 속에서 ‘보통의 국가’가 아닌 ‘공세적 요



새 국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설정했음을 시사한다.

2) 비대칭 도발의 고도화와 '대한민국 패싱(Korea Passing)' 상설화

2026년 북한의 대남 기조는 대한민국 정부를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제거 대상' 혹은 '전략적 무시'의 객체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패싱(Korea Passing)'의 상설화로 요약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저가형 자폭 드론, AI 기반 무인기, 그리고 고도화된 전자전(EW) 역량을 투사하여 한국의 방공망과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교란하는 '회색지대(Gray Zone) 도발'을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직접적인 전면전의 위험은 회피하면서도 남측 사회에 극심한 안보 불안과 국론 분열을 획책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린 전략이다.

이러한 군사적 모험주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은 한국을 주변부로 철저히 밀어내고 미국 및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통해 확보한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미국에는 '핵 군축 협상'을, 한국에는 '안보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양면 작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국제적 힘의 논리에만 기반한 지정학적 분절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군사 및 외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투영한 결과물이다.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대응 역량을 소진시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입지를 좁히는 '전략적 배제'를 목표로 한다. 2026년의 한반도는 북한의 고도화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위협 속에서, 민족적 유대감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지정학적 계산과 비대칭적 긴장 상태가 일상화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6. 맺으며: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제언

2026년의 북한은 화려한 성과와 선전이라는 가면 뒤에 심각한 자원 결핍과 공포 정치를 감추고 있는 모순적 정체성을 지닌다. 스스로를 '요새 국가'이자 '공세적 개입군'으로 재정의한 북한의 선택은 체제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위태로운 도박이며, 과도한 자력갱생의 요구와 약탈 경제의 구조는 체제

균열의 임계점을 앞당기는 내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생존 전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압도적 억제력(Extended Deterrence)과 위기관리의 병행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체계화하여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억제'를 유지하되, 회색지대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소통 채널과 위기관리 기제를 복원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 비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관리하는 실용적 대응이다.

둘째, 북한 주민의 인지적 변화를 이끄는 소프트파워 전략이다. 북한 당국의 봉쇄 정책에 맞서, 국제기구와 다자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편적 인권과 민생 지원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투사해야 한다. 주민들이 겪는 '동원의 피로'와 통제 사이의 틈새를 공략하여 북한 내부로부터의 점진적인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체제 변동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 가치 기반의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 정립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과거의 감성적 민족주의에서 탈피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현실적 평화 공존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정교화하는 과정이며, 북한의 담론 폐기에 휘둘리지 않는 주도적인 통일 철학을 확립하는 작업이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이 차가운 '결빙의 시대'를 극복하는 힘은 북한의 수사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지혜와 치밀한 전략적 준비에서 나온다. 북한의 기형적 생존 모델을 무력화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과 국제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6년 북한 전망

정은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I. 시작하며

2026년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담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향후 5년의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 2025년 1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의 완수를 선언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지향한 역사적 위업은 그 첫 단계를 성과적으로 경유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2026년 1월 1일 김정은 당 총비서의 신년 경축 연설에서는 “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더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며 독려했다. 이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인 결속과 경제·사회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026년은 북한이 강조해 왔던 ‘우리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더욱 강조되며,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의 업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행보를 강화하는 정점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II. 북한의 정치

2026년 북한 정치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신격·신조화이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며 당의 영도력 강화에 집중했다. 2026년에는 제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수령’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본격화하며, 김정은 중심의 북한

사회주의의 강성국가 건설 완성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 특히 ‘김일성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이은 ‘김정은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명문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올해 신년 경축 연설에서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북한의 노동당 제9차 대회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대외 전략과 국방력 강화,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병진노선’의 새로운 단계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권력 구도의 재편, 즉 세대교체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국가제일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적 결속 강화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표면화할 것으로 본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북한의 당규약에 명시된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이다. 북한은 2025년에 경제 건설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인민 중시’ 기조를 지속 강조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인 경제 잠재력의 한계, 대북 제재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신년 경축 연설에서 “2025년에 우리가 믿은 것은 오직 인민의 애국 충심”이라며 북한 주민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애국심을 더욱 높이 발휘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26년에도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민심을 다독이는 한편,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이는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농업을 주요 사회주의 생산 부문으로 규정하고, 식량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26년 북한의 정치 분야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권력 구조의 재편과 내부 결속 강화이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력 구조 재편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책 집행의 무책임성과 비효율성에 대해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강화하고, 세대교체 차원의 징계를 단행하여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러시아 파병 장성들을 주요 직책에 중용하여 군 내부의 충성을 독려할 것으로 전망한다.

III. 북한의 외교

2025년 북한 외교 정책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2026년 김정은 당총비서의 신년 경축 연설과 지난해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통



〈2021년 1월 11일 북한 노동신문은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의 ‘총비서’로 ‘추대’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북·중·러 정상〉

해서도 이러한 기조를 강조하였다. 우리를 ‘화해와 통일의 대상’에서 ‘불변의 주적’으로 공식화함으로써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항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26년에도 북한은 당 제9차 대회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유지하여, 대남 관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 2025년은 북한이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유대도 전략적으로 지속했던 해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고,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는 등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김정은 당총비서는 신년 경축 연설에서 “멀리 이역에서 조국을 그리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해외 작전부대 장병들에게 전투적 경의”를 표한다며, 러시아 파병 부대를 영웅화하고 북러 군사 협력이 북한의 중요한 대외관계 자산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인적 교류를 통한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의 돈독한 관계를 넘어, 전쟁 실전 경험을 축적한 인적 자원 확보의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역시 ‘전통적 우호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시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북한은 이러한 북·러·중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무력화하고,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한의 군사적 현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2026년에도 북·러관계, 북·중관계에서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미 관계에서는 2025년의 ‘최강경대미대응전략’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빅딜을 전제로 한 협상도 즉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 북한은 대미 정책에 있어 ‘힘 대 힘’의 대결 구도를 유지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추진했으며,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여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했다.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 사실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로 해석된다. 2026년 북한의 대미 전략은 기존의 강경 노선을 유지하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지속하며 이를 위한 기회 마련을 병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체제 안정을 보장하며 이러한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핵 능력 고도화를 협상카드가 아닌 ‘체제 생존’의 핵심 보루로 간주하며 북·중·러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하면, 2026년 북한의 외교는 신냉전 구도 속의 자립자강 강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반미 연대를 강화하여 국제적 고립을 돌파하고,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대남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 아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9차 당대회를 통해 이러한 강경 노선을 공식화하고 향후 5년 간의 외교·국방 정책의 기본 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IV. 북한의 경제

2025년 북한 경제는 대북 제재가 강행되는 속에서도 국방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 기조를 유지하며 핵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무력 강화에 집중했다. 한편으로는 식량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국가 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의 마지막 해 과업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와 함께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을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경제 분야 성과 창출의 주요 과업으로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현상이 고착되었다. 북한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의 중점 과업으로 농업과 민생 문제 해결 정책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올해 식량 문제 해결 등의 민생경제 회생을 체제 안정과 내부 결속의 주된 과제로 절감하고 이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신년 경축 연설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는 “과학농사예로의 확고한 전환”, “알곡 생산구조에서의 대변혁”을 강조하며, 단순한 생산량 증대를 넘어 농업 기술 현대화와 농업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농업 현대화를 위한 트랙터(트랙토르) 공장 재건, 농업기계화 등이 핵심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 생산에서는 북한이 농업을 ‘주요 사회주의 생산 전선’으로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만큼 생산구조가 쌀 중심에서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즉, 밀 재배 확대를 식량 생산량 증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황해도와 평안도 등 주요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량 가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 건설이 아닌 기존의 농산물 가공 설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자재 및 자금 부족을 고려한 농업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농업 생산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연료 및 비료 부족 문제 해결을 병행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독려하는 선전물〉

한편, 북한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양곡판매소를 통한 식량 배급 제도를 고착시키고 식량에 대한 당국 차원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탄광 마을 개편 사업을 본격화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향후 10년간 매해 20개의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이다. 2026년 3년 차 과업 수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역 개발을 넘어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북한 사회주의 발전의 야심 찬 경제 목표이다. 이와 함께 탄광 개발은 석탄 생산 증산을 위해 탄광 마을을 현대화하고 청년 노동력을 배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2026년 북한 경제는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의 경제 현황을 놓고 볼 때 중앙의 투자재원 마련, 탄광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설비와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 등은 경제 목표 달성과 직결된다. 과연 북한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요약하면, 2026년 북한의 경제는 내수경제 강화를 위해 농업 분야 식량 증산, 지방 경제 발전, 사회주의 원칙에 기반한 경제관리 운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경제 분야 투자 자원 확보, 자원 부족 및 비효율적 통제 시스템 교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체제 유지를 우선한 경제 목표 달성보다 실제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는 2026년 중앙의 강력한 통제와 시장의 부분적 활용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될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에 따라 첫해의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 회생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V. 북한의 사회·문화

북한 사회정책의 기본은 집단주의, 수령제일주의,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다.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북한은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상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상 교양을 통한 당정책 관철 의지 고양,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병행하며 사회 전반에서 통제 수위를 높여 당대회를 준비할 것으로 본다. 한편,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검열, 책임 전가 징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신년 경축 연설에서 “문화예술 부문은 당의 사상과 노선을 인민대중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문화 분야에서 외부 사조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를 강행하였으며, 2025년에도 반사회주의 현상 규제를 위

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12) 법규에 따른 징계를 강화하였다. 2026년에도 북한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청년세대의 사상 이반을 제어하기 위한 정치사상 교양 및 조직 생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은 지도자 중심의 결속을 위해 ‘우리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애국심을 발휘할 것을 독려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이탈이 증가하고, 사경제 활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도록 사상 교양을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 대부분은 집단주의보다 개인과 가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직장 소속으로 생산 현장에 전념하여도 식량 배급과 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립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배금주의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 시장 경제활동 증가, 외부 문물을 통한 의식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2026년 북한은 이러한 부문에 주목하여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내부 통제를 통해 사상 이반을 차단하며 결속을 도모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VI. 마치며

북한의 2026년은 김정은 시대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새로운 비전’ 선포와 이를 향한 행보를 가속화할 시기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신격·신조화와 유일영도체계 공고화, 외교적으로는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표방하며 대미·대남 관계에서 강경전략을, 북중러 관계에서는 연대 강화를 강조하며 실익 추구의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한다. 군사적으로는 핵무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강화를 병행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식량 문제의 해결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대가정 결속 도모, 사상 이반 및 체제 이탈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완성하고 공산주의 사회에 진입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의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그 과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민심 이반,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26년 북한 전망: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오 일 환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2026년 북한 전망은 2026년 초 개최가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당대회는 향후 5년의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노동당은 이 대회를 통해 지난 5년(2021~2025)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2030년까지 이행될 새로운 이정표로서 국가 발전 전략을 발표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 당대회를 기점으로 권력 기구 재편을 통한 체제 결속과 경제 자립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로동신문』은 2025년 12월 31일 ‘2025년이여 길이 전하라, 위대한 헌신의 려정을!’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2025년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마지막 계선을 돌파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의 해’로 규정했다. 이 신문은 아울러 미래 비전으로 전국의 시·군에 현대적 병원 건설, 농촌 발전, 탄광 지구 전변 등을 나열했다.¹⁾

『로동신문』 지난 1월 1일 자에 따르면, 김정은은 신년경축연설을 통해 “우리는 2025년의 갈피갈피에 방대한 사변들을 기록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결속했다”며 “이것은 분명 우리의 이상과 신념, 우리의 힘과 분투가 안아올린 영예인 동시에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뚜렷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2025년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은 “모두다 애국으로 더 굳게 단결하여 당 제9차대회가 가리길 새로운 전망을 향해 더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²⁾

아직은 2026년의 북한을 전망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25년의 성과를 성공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초를 2026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제9차 당대회가 제시할 ‘새로운 전망’, 즉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담론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북한의 대외 분야까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한정하여 2026년의 북한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정치 분야 전망

북한은 금년 초로 예정된 제9차 당대회에서 권력의 재정비를 통해 김정은 중심의 일인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체제의 공고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에 연이어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 이란 사태는 김정은 정권을 크게 놀라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북한에서도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김정은 정권은 사상 통제와 함께 체제 불만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 및 통제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의 재정비가 이뤄지는 제9차 당대회를 이용해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교수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2026년 한반도 정세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포럼에서 북한이 “9차 당대회를 통해 선대와 구별되는 ‘김정은 시대’의 독자적인 이념 노선을 선언하고 사상적, 정책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김 위원장이 ‘국가주석’직에 오르고 김일성·김정일 선대에 이어 ‘공화국 대원수’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³⁾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함께 2022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김정은 우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제9차 당대회는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며, 이를 내부 정치용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면서 내부 단결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을 더 이상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주적으로 인식시키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 강화를 위한 선전·선동과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법제화함으로써 정책 전반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컨대, 제9차 당대회를 기해 남북 관계를 ‘영토 완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당규약 명시와 함께 헌법 개정으로 제도적 분리를 완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북한이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우려한 나머지 더 이상 한국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영구적

1) SPN, 2025.12.31. 07:47.

2) SPN, 2026.01.01. 10:58.

3) 『한겨레』 2025.12.09. 18:50.



〈올 1월 1일,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신년 참배 행사에 최초로 참여한 김주애. 참배 대열 정중앙에 자리잡은 점이 눈에 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인 적국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통일 담론으로 인한 내부 이완과 체제 비교, 이에 따른 대남 동경심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김정은 정권의 수호 및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현실주의적 계산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교류의 법적 기반을 허물 뿐만 아니라, 군사적 도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을 통해 대외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내부 결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국경선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을 별개 국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유사시 군사적 긴장 관리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북한이 DMZ 내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는 남측의 도발로 뒤집어씌우는 방식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놓고 북한 내부의 결속과 통제 강화의 명분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결국 ‘적대적 두 국가론’은 기존 남북 관계의 근본적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김정은 정권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유일 영도체계 강화를 위해 ‘김정은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를 통해 4대 세습의 정당성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 내내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4대 세습’ 계승자로 정당화하고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전·선동에 박차를 가하며 후계 구도를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2일 자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에 따르면, 1월 1일 김정은·리설주 부부와 함께 김주애가 김일성·김정일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일정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책임간부, 국방성 지휘관 등 당·국가·군 지도부가 동행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북한의 핵심적인 국가 상징 장소인 데다 김주애가 김정은·리설주 사이 가운데서 참배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후계 문제와 관련해 커다란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장에도 김정은·리설주와 함께 참석했었다. 김주애가 아직 어리다는 점에서 후계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분석도 있지만, 후계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김정은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레 병사하게 된다면, 그의 곁에서 정치·외교 현장 경험을 가진 데다 이미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동생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경제 분야 전망

2026년은 북한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고,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경제 전략이 발표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6년 북한 경제는 제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할 것이다. 국가 통제력을 극대화한 ‘자립 경제의 현대화’에 집중하며 자체 생산 및 공급 기반 강화, 부품·원자재의 해외 의존도 낮추기, 국영기업 효율성 강화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시장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내보인다.

지방 민심을 다독이고 중앙의 통제권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3년 차에 접어들며 지방 공업과 보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2024년에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이내에 전국적 발전과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평양 중심의 자원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원년인 금년에 이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2월 30일 자 『로동신문』의 논조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김정은은 12월 29일 남포시 용강군 병원과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서 “용강군 병원과 지방공업공장 준공으로 올해 계획했던 시범적인 병원과 종합봉사소, 20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완결했다”며, “2025년은 지방발전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로 더욱 명백히 실증한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올해에 강동군과 구성시, 용강군에 표준적인 지방병원을 건설하는 등 확대된 지방발전정책 실행 과정을 통해 지방건설을 확실한 발전단계에 올려세울 수 있는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축적했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전국의 시, 군에 건설될 지방병원의 운영과 의료봉사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을 밝히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본연의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⁴⁾ 김정은이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026년 내내 북한은 김정은의 지방건설방침의 관철을 촉구하면서 지방 현대화 사업의 완수를 다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정책이 당장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재 부족은 물론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난으로 지방 공업 공장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란 결코

4) SPN, 2025.12.30. 07:54.



〈북한 지방발전 20×10 선전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노후화된 공장들은 황폐화될 것이 뻔하며 이로 인한 사회·환경 문제도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방 현대화 사업의 완수를 다그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건설 현장에 돌격대를 적극 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 공업 시설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올해 들어 다시 시작된 건설 현장 돌격대 선발에 큰 피로감을 호소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1월 19일 데일리NK에 “해산시 강구동 일대 농촌 살림집 건설과 삼지연시 국가 중점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며 김형직군의 도내 공장·기업소들에서 돌격대 차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며 “국가에서 화려한 구호를 내세워 지방 발전을 강조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고, 괜히 이로 인한 돌격대 동원만 계속돼 주민들의 삶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⁵⁾ 또한, 북한 당국은 지방 현대화 사업의 완수를 위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방과 경제의 병진’을 강조하며 군 병력을 건설 현장에 대거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 확보에도 불구하고, 건축 자재나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 사업은 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북한은 국제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생을 위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국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 2026년에도 러·우전쟁이 지속되는 한 러시아 측으로부터 파병 대가와 함께 포탄 및 무기 수출로 유입되는 외화와 유류, 식량 지원이 경제 위기 극복에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 노동자 파견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러시아 지역 건설과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분야로 노동자 파견을 증가시키며 외화 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 양상이 변하여 파병 인원과 무기 수요가 줄어들 경우, 외화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회 분야 전망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다. 북한 당국은 이 폐쇄성을 이용하여 일인 독재 왕국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철권통치를 한다고 해도 틈새가 생기기 마련이다. 큰 댐이 균열이 생기고 그 틈새로 고압의 물이 새기 시작하면 결국 터지게 마련이듯이 어떤 체제든 외부의 정보가 유입되고 사회적 불만이 가중되기

시작하면 점차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다. 2026년에도 북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요인은 이미 북한 사회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한류 문화(K-culture)의 확산과 러시아 파병 군인 희생에 따른 사회적 불만 확대일 것이다.

한류 문화는 북한 사회를 당장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를 크게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2026년 한 해도 여전히 사회 변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상 무장 강요와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체제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류 문화를 비롯한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단속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특히 한류 문화에 열광하는 장마당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동통신·정보통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3대 악법을 철저히 시행하며 한류 문화의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 3대 악법은 북한 당국이 한류 문화를 방치할 경우 가져올 체제 내부 붕괴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통제 장치이지만,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한류문화 심취 현상을 차단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당국이 통제를 강화할수록 젊은이들에게 ‘금지된 매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장마당을 통해 USB·SD카드·외장하드 등의 은밀한 유통을 막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한류 문화 속의 콘텐츠는 북한 젊은이들에게 모방 심리를 자극하며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유발하는 한편,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힘이 있어 기존에 당이 주입해 온 정체성과 세계관에 혼란을 초래하며 점진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러시아 파병 희생자들과 관련하여 ‘조국 수호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애국심 선전·선동을 통해 파병을 정당화하며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2026년에도 그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북한군의 손실이 계속 증가할 경우 이는 북한 사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현황은 초기 전투 병력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적·경제적 협력 체제로 고착화되면서 파려 인력은 대폭 늘어났다. 2024년 말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약 1만 2천 명의 정예 부대를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파병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전투 병력뿐만 아니라 점령지 인프라 복구 사업을 위한 공병대와 건설 인력 약 5천 명이 추가로 파견되었다. 약 1,000명 규모의 공병대는 지뢰 제거 작전 등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전체 파려 인력 규모는 4~5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당국은 전사자 유족에게 단순 보상 제공에 그치지 않고, 유족들의 공식

5) 『데일리NK』, 2026.01.19. 12:34.

행사 참여, 정권 충성도를 강화하는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공식 행사 참여 외에도 전사자 관련 학습회나 강연 등에 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러시아 파병은 표면적으로는 당의 선전·선동으로 애써 미화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파병 이후 전사상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군 탈영병의 증가, 청년들의 군입대 회피 속출, 파병 가족들의 불안감 확대 등의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파병 군인들의 사망 및 부상 소식은 사회적 불만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은 정보통과 국경지대 소식통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등 외부로의 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은밀히 유통되는 소문을 차단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파병 전사자들을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으로 포장하고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은이 전사자 유가족 앞에서 연설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연출하며 TV 매체를 통해 방송하고, 전사자들을 애국적 희생으로 미화하는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사회적 불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사자 유가족에 대한 특혜 제공, 희생에 대한 공식적인 추모 행사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8월 2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추모의 벽’을 세우고 전사자 초상 101개에 메달을 수여했고, 불과 일주일여 만인 8월 29일에는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참전군인들에 대한 제2차 국가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는데, 김정은은 평양 목란관으로 유족들을 초청해 인공기로 감싼 전사자들의 초상을 일일이 전달하고 이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한다”며 “영웅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혁명학원들에 보내여 내가, 국가가, 우리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적으로 잘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평양시 대성구역에 참전군인 유족들을 위한 새 거리, 즉 ‘새별거리’를 조성하고, 바로 앞 수목원의 명당자리에 전사자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불멸의 전투위훈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⁶⁾ 지난해 12월 13일 자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러시아 쿠르스크(Kursk) 지역에 파병되어 3개월여 지뢰 ‘제528공병연대’의 귀국 환영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는데, 김정은은 환영 연설에서 “비록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공병연대의 지휘관, 병사들 모두가 돌아와 주어 감사한 마음을 재삼 표하는 바”라고 언급하며, 지뢰 작업 중 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실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전사자를 언급한 첫 사례에 해당한

6) 『문화일보』, 2025.08.30. 08:14.

다. 김정은은 전사자 9명에게 ‘공화국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을 내렸고, 4·25문화회관 중앙홀 ‘추모의 벽’의 전사자 초상에 훈장을 달아주고 헌화·묵상했으며,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⁷⁾ 2026년 1월 1일 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새해를 맞아 전날 밤부터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신년 경축 행사에 참석해, “위업의 선두를 맡아준 인민군 장병들은 지난해에도 막중한 고생을 감내”했다며 “생명을 바쳐 이루어낸 고귀한 승리로써 후세도록 우리를 영웅적인 연대를 안아올렸다”고 파병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또 파병 부대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에는 파병 부대 장병들에게 “우리 당과 인민의 마음속 첫 자리에는 항상 조국의 장한 아들들인 동무들이 있다”며 “하루빨리 전체 해외 작전부대 장병들과 뜨겁게 상봉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새해 축하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⁸⁾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군 내부의 불만 확산에 따른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전사자의 희생을 애국심과 체제 충성의 결실로 포장하는 선전·선동으로 군 내부를 결속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해 추석을 맞이하여 각 지방 당 간부들에게 전사자 유족을 직접 찾아가 위문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추석을 앞두고 각 도당에 해외 군사 작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열사들의 유가족들을 찾아가 위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각 도당은 중앙에서 내려보낸 유가족 명단에 따라 방문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⁹⁾ 그러나 금전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사자 유가족들을 비롯해 상이군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북한 내부에서의 불만 표출은 강력한 사회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동요나 저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 정보가 널리 알려질 경우, 그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17일 기독교통일포럼 신년 1월 포럼에서 최경희 박사(샌드연구소 소장)는 「북한, 2025년 외화내빈의 현실과 2026년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 외교적 메시지와 군사적 행보를 통해 강한 국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민생 문제를 넘어 체제 안정성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부 경제 압박이 누적되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현재



〈북한 방송이 공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사자 유해 송환 장면 (사진=조선중앙TV)〉

7) 『연합뉴스』, 2025.12.13. 11:15.

8) 『연합뉴스』, 2026.01.01. 09:30.

9) 『데일리NK』, 2025.10.14. 9:57.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2화

졸업 후 제철소에 들어가 몇 년간 일을 하다가 기관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먹고살기 바쁜 삶을 살다 보니 멀리 황해도에 계신 외할머니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할머니께서 몸이 쇠약해지셔서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황해도로 갔습니다. 저도 외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어렵게 휴가를 받아 황해도로 내려갔습니다.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병상에서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의 병세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으니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픈 외할머니를 병원에서 모시고 왔더니 벌써부터 할머니의 집을 국가에 반납하라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토대가 좋은 외할머니이셨지만 외할머니가 편찮으시자 곧 돌아가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 집을 뺏아가려고 아직 숨도 넘어가시지 않은 외할머니에게 집을 내놓으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당연히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제서야 그들은 도로 돌아갔지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다시 찾아와 집을 가져갔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외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휴가 기간이 다 되는 바람에 기관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네요... 휴가가 다 되어 가봐야 할 것 같아요...”라며 미안해하는 저에게 외할머니는 가냘픈 목소리로 “그런 걱정 말고 빨리 내려가거라. 네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좋았다.”라고 하시며 저를 안심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다시 함경도로 올라와 직장에 복귀하였고, 어머니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여동생은 이미 모든 삶의 터전이 황해도에 있어 그곳에 남았지만, 그동안 외할머니집에서 살았다 보니 그 집이 회수당하고 난 뒤에는 지

의 북한 상황을 진단했다.¹⁰⁾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갈수록 내부적으로 경제 압박이 누적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된다면 자연히 사회적 불만이 팽배하게 되고 그만큼 체제 안정성은 취약해지게 마련이다. 현재로서는 아무리 북한 당국이 경제 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군인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구조적 개선 없이는 결코 사회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는 단기적으로는 공포와 통제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주민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체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촉진시키는 일은 실로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만이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촉진을 가져와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개혁·개방은커녕 남북대화마저도 단절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상으로 가득한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한복음 12:46)

북한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한류 문화에 복음적 콘텐츠를 담아 북한으로 실어 나르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한류 문화에 심취해 있는 세대가 복음적 가치를 내면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곧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로 가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복음적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한국교회가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복음적 관점에서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를 차근차근 궁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 『기독일보』, 2026.01.19 17:01.

낼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 있던 농장에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산 사람들은 살아야 했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착실히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살아낼 수 없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의 죽음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영웅을 넘어 완전한 신처럼 떠받들던 수령이 죽자 많은 사람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애도기간 동안 김일성 동상 앞에서 울다 울다 기절해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라에 모든 인민이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김일성 동상으로 찾아가 절하고 애곡하는 애도 기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에서 잠시 벗어나 군사 훈련에 참가할 때였는데 직장도 훈련 부대 모두 제가 어딘가에 속해서 참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김일성 동상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애도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탈북민 중에 김정일, 김정은을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 김일성을 욕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문 이유는 김일성 시기에는 비교적 살만했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죽음은 인민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에 큰 위기였습니다.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이 수령이 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급이 완전히 끊기고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살기 위해 몸부



림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순진하게 나라를 믿고 직장에서 일만 하던 친구들은 다 굶어 죽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기업소에서 열심히 일해도 나라에서는 쌀 한 주먹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살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도 성실하던 사람도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져 갔습니다. 군인들도 선군정치로 높아진 위상과 절대적인 무력을 앞세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탈취했던 무법한 시기였습니다.

외부에서 여러 지원이 왔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많은 쌀을 보내왔지만 그 중 상당량이 재포장 되어 아프리카로 보내졌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렸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쌀을 보내고 시찰단을 보내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현실을 보고 갈 수 없었습니다. 지원된 쌀을 마당에 쌓아놓고 주민들에게 쌀을 한 묶음씩 나눠주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던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사찰단은 '인민들에게 쌀이 잘 배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흐뭇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 나라에서는 더 이상 쌀을 나눠

주지 않고 쌓아놓았던 쌀자루를 트럭에 싣고 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수백 명씩도 죽어 나갔던 와중에도 김정일은 막대한 자금을 핵무기를 만드는데 쏟아부었음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참담한 심경이 아직도 제 가슴에 저려오듯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하여 출가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함경도 집을 지키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벼농사를 짓는 곡창지대인 황해도라면 조금이라도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동생들을 데리고 황해도에 있는 여동생에게 가셨습니다. 하지만 추수한 곡식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인지 황해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굶주림의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 이미 출가한 저였지만 집에 홀로 계신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며 헤매던 중 어디서 입쌀과 몇 가지 먹을거리를 조금 얻었는데 그날은 웬지 그것을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혼자 주무시고 계시던 아버지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깨셔서 무슨 일인지 물으시고는 곧 불을



〈북한의 장마당을 떠도는 아이들(99년 1월 KBS 일요스페셜 방영)〉

때셨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버지와 상을 차려 먹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황해도에서 돌아온 남동생과 함께 식량을 구하러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중 두만강이 있는 마을에까지 다다르셨습니다. 아버지는 남동생에게 그간 모은 식량을 건네주시며 이 식량들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서 가져다 놓고 다시 약속한 날짜에 여기로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이틀이 지나서야 아버지와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내려왔고 그 후로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신 채였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국경 마을에 있으면서 중국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갔다 오기로 결심하셨고, 동생과 함께 강을 건널 생각으로 식량을 가져다 놓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걱정되었지만, 가족들은 마음 한편에 아버지가 중국에서 살길을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소망의 끈을 붙잡고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버텨나갔습니다.

금방 돌아오실 것 같은 아버지는 3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참으로 혹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린 시절 오랫동안 지낸 경험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는 황해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여동생이 황해도에서는 구하기 힘든 동해 바다의 싱싱한 물고기를 팔면 도움이 될까 하여 함경도 집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

동생은 장사할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고, 저는 제대로 황해도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기차표를 살 돈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몰래몰래 열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마침, 기관사로 일하고 있을 때여서 철도 정복을 입고 기차를 타면 열차표 단속을 할 때 일 때문에 기차를 탄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원산 갈마 지역에 증기기관차를 수리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열차를 맡겨놔서 찾으러 가는 중이라고 둘러대며 원산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걷기도 하고 중간에 또 몰래 열차를 타기도 하며 마침내 황해도에 동생이 살았던 농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렸지만 동생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은 내려오는 열차 안에서 장사할 물건과 짐을 훔쳐 다 도둑맞고 알려지지 않아서 다시 함경도 집으로 겨우겨우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동생과는 엇갈리기는 했지만 저는 제대로 황해도에서 지내며 이리저리 먹을 것을 구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냈지만, 하루하루 먹기에만 급급한 시간이 계속되었고, 그 이상의 양식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에 있는 아내 걱정 때문에 6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돌아가자마자 저는 6개월 동안 직장엔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려가 썩어지게 얻어맞은 뒤 다섯 달 만에 6개월 노동형을 선고받아 단련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기지로 없는 살림에 중국제 고급 담배를 윗사람들에게 찔러주어 형이 감형되었고, 한 달 보름 만에 그곳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아무 배급도 주지 않는 직장엔 매여 있어야 한다며 구타하고 수감하는



그 행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보니 어머니께서는 아무 드실 것 없이 오랜 굶주림에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가족을 도울 방법을 찾던 중 잡혀가기 직전에 처갓집에 벗어두었던 잠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옷을 팔면 먹을 것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옷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잠바를 판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국밥을 사드렸습니다. 실컷 드시라고 하였더니 너무 급히 드시고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셔서 소화제도 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국수와 쌀을 조금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노력은 가족이 겨우 한두 끼를 때우는 수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지만,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마당에 굶으면서 일해야 했고, 직장 일만 해서는 대책이 없으니 또 다시 직장을 나가지 않고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

김주애, 선대 안치 금수산궁전 첫 참배… 김정은 대신 정중앙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처음 공개적으로 참석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리설주·주애 세 가족이 참배 행렬

맨 앞줄에 자리했고 주애는 그중에서도 정 가운데에 선 모습이다. 부모인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주애의 양옆에 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거의 매년 새해 첫날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했지만 2018년과 2024, 2025년에는 건너뛰었다. 그러다 올해 딸 주애를 데리고 신년 참배를 재개하였다.

이날 참배 소식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렸다. 조선중앙TV도 이날 주애가 참배 행렬 정중앙에서 금수산태양궁전 계단을 오르는 모습 등을 방영했다 (참고: 연합뉴스 1월 2일) 🐟

당대회 앞둔 김정은, 대규모 청년행사… “계승의 보무 계속돼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대회가 1월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됐다. 당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 세대의 사상적 결집 유지를 강조하는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혁명 위업의 계승을 강조했다. 그는 "새 세대들의 변질을 노리는 유혹의 바람"이 멎은 적 없었지만 "청년들이 추켜든 붉은 기는…바래지 않았고 순결하고 철저한 계승 속에서 더 높이, 더 거세차게 휘날려 왔다"고 자찬했다. 또 기념대회에 참석한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가리켜 "조선(북한)의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세상은 아직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청년동맹은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인 4대 근로단체의 하나로, 노동당원을 제외한 만 14~30세 모든 청년·학생층이 가입해야 하며 동맹원 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참고: 연합뉴스, 1월 17일) 🐟

김여정 “명백한건 한국발 무인기 영공침범… 반드시 설명 있어야”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발 무인기 잔해들(사진=조선중앙통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월 11일 지난해 9월과 1월 4일 있었던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에 우리측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설사 민간 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여정은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도 보도됐다. 이번 담화에 대해 곧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명문화·제도화하기 위해 '한국 적대화' 프레임을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고: 연합뉴스, 1월 11일)

北 “미, 베네수엘라 주권 난폭하게 유린… 불량배적 본성 다시 확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월 4일 미국이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해 압송한 데 대해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 행위를 가

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 침해로,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영토 완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1974년 수교 이후 반미 전선을 펼쳐며 유대 관계를 다져왔다. (참고: 조선일보 1월 5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입을만한 책



제 목: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 - 노동당 39호실장 전일출 딸과 사위 증언

저 자: 류현우

출판사: 동아일보사

발행일: 2025년 10월 25일

가 격: 23,000원

근래에 탈북한 북한 외교관들의 글이나 증언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나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무 참사 등 여러 전 북한 외교관들이 활발하게 여러 미디어에서 고위 외교관으로서 경험한 북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들의 증언이나 저서는 일반적으로 알기 힘든 북한 엘리트의 세계나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행보에 대한 배경 및 뒷이야기 등 흥미롭고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오늘 소개할 책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 역시 북한 고위 외교관의 증언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전 쿠웨이트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를 역임한 류현우 씨이다. 저자는 본인이 고위 외교관

이면서, 동시에 ‘김씨 일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실장 전일출의 사위로서 장인 집에서 17년간 처가살이를 하는 등, 당과 군부의 최고위층 생활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이 책은 류현우 씨가 외교관으로서, 또 엘리트로서 경험한 북한을 증언하고 있다. 최고위층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는 1인당 감자 2kg의 배급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장인과 그 가족 등 북한 엘리트 사회의 열악한 민낯, 북한이라는 국제사회에서 낮은 평판을 지닌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상부의 갖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겪은 여러 고충,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북한 사회의 여러 문제점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담겼다. 책의 제목이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이다 보니 김씨 일가의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은 몇몇 일화를 통해서만 언급이 된다. 대신 본인이 외교관 생활을 하며 겪은 다양한 일화와 북한 엘리트로서 알게 된 김씨 일가 및 북한 지도부의 여러 이슈에 대한 내용이 이 책의 주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책의 분량이 상당하고 그 주제도 다양하다 보니 어떤 한 부분을 꼭 집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근무했던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적 활동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여러 보도나 연구를 통해 중동지역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 등의 정황을 종종 접하곤 하는데, 실제 전직 외교관이 들려주는 그 배경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이 책에서 느껴지는 저자의 북핵과 지도자에 대한 인식도 인상적이었다. 어려운 국가 경제와 수해 등으로 인해 외교관으로서 해외로부터의 도움을 얻고자 했을 때, 핵 개발에 쓸 돈은 있으면서 구호에 쓸 돈은 없냐고 타박하는 상대국 관리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움, 그리고 굶주리는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사치에 힘쓰는 김정은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저자의 말은 비인간적인 통치로 인한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다.

짧게 언급되었지만, 종교 관련 오해로 인한 일화도 흥미로웠다. 저자는 학창 시절 평양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다니면서 원어민 교수에게 수업을 듣던 중, 종교적인 표현이 일상 언어에부터 녹아있는 아랍어의 특성상 공부를 위해 코란에 있는 표현에 주석을 붙여 풀이한 서적을 빌렸다. 그런데 이를 학생 중 하나에게 고발을 당했고, 성경책

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것으로 오해받았다고 한다. 서적 자체도 성경이 아니고, 빌리기만 했을 뿐 읽어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망할 뻔한’ 큰 봉변을 본 저자의 이야기는, 북한의 종교 박해, 특히 기독교에 대한 적대심과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금고”는 책의 분량은 두 겹지만 2~3페이지의 짧은 분량으로 여러 일화와 주제를 주제별로 묶은 구성을 취하고 있어 꼭 한 번에 독파하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부분을 골라가며 읽을 수 있다. 저자의 배경이나 글의 소재를 생각할 때, 북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북한 엘리트들의 저서나 증언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가지곤 했던 의문은 일반 서민들도, 엘리트들도 원하지 않는 억압적인 현재의 북한이 어떻게 계속 유지되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북한의 공포정치에 대해서, 장성택 숙청에서부터 김정남 피살과 그 외 여러 고위 간부의 숙청 뒷이야기 등을 수십 페이지를 할애하며 소개한 부분을 읽으며, ‘두려움’의 정서가 현재의 북한을 유지하는 바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려움에 기반한 통치가 안정적이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질문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이 질문으로 책의 소감을 대신하며 전 북한 외교관 류현우 씨의 저서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금고”를 소개해 본다. 🐟

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번에 발표된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World Watch List) 2026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혔습니다. 더 극심해진 주민 통제로 인한 억압이 증대되고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적극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종교 물품과 미디어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신앙을 가진 개인과 지하교회를 적발, 추적하는 공안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갇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집사님께서는 옥중에서 몸무게가 크게 감소하고 치아가 유실되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오히려 가족들의 신앙을 걱정하며 믿음으로 수감 생활을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귀환을 통해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교회 성도와 강제 복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교회 성도 가족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 북한은 예정된 제9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북한이 천명할 방향성이 한반도 평화 증진이나 주민 인권 개선보다는 대외적으로는 신냉전 구도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강화가,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우상화와 극심한 사상 통제 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당국의 노선 속에서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겪을 고통이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올 한 해 북한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에 진전이 있고 주민들을 향한 억압이 완화되도록, 특별히 예배의 자유를 비롯한 주민들의 권리가 신장되도록 기도합니다.

4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파견되고 있고, 올해에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비록 통제 아래 있지만 북한 밖 세상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듣지 못했던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북한은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민생 경제 증진에는 그리 기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경제활동 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전한 각종 노력 동원과 세외부담도 큰 부담입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극심한 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소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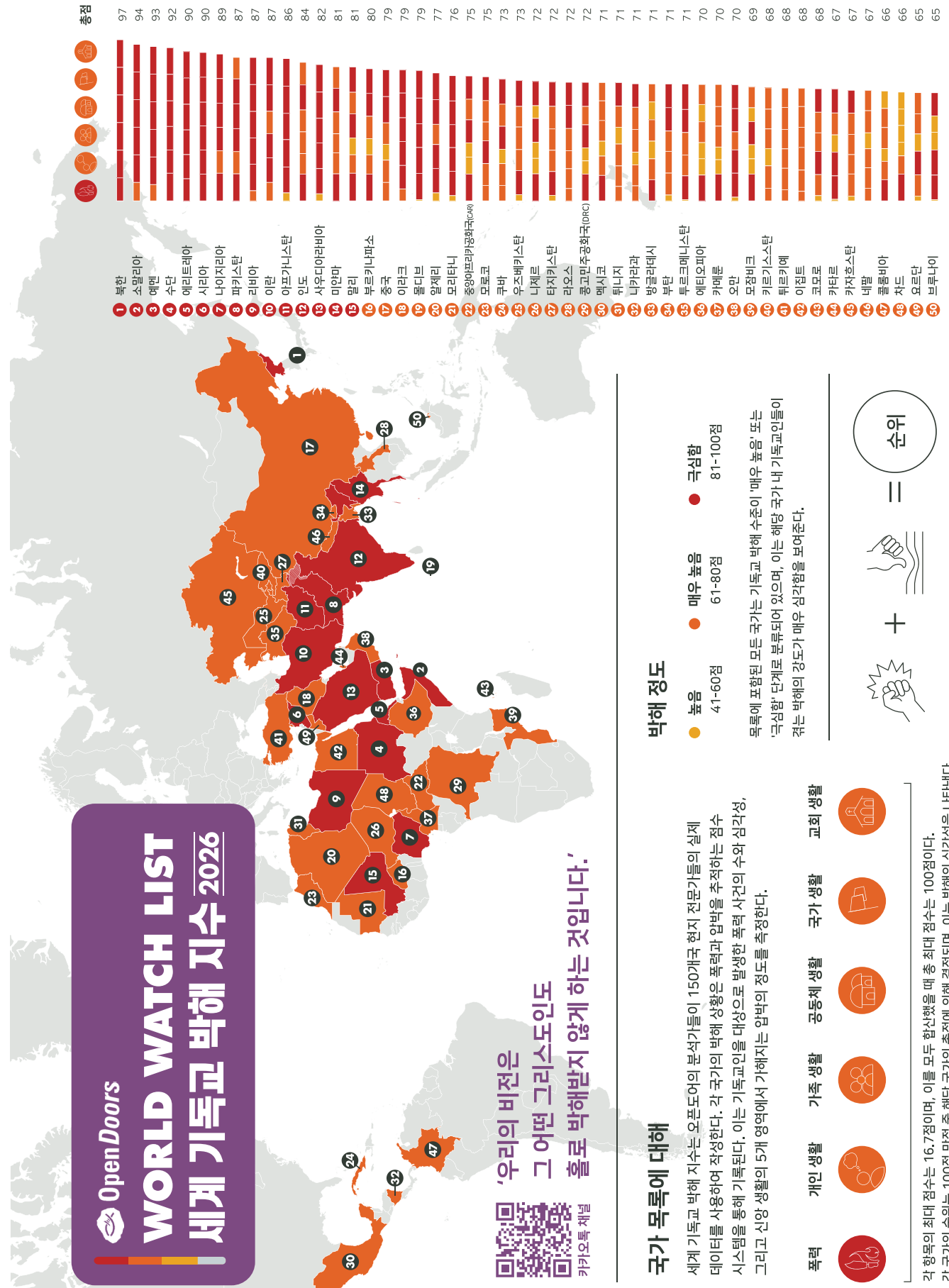
6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북·중·러 관계는 긴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북한과 주변국 간 협력이 선교 현장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의 종식 가능성, 북·중 관계에서 여전히 보이는 불협화음 등 변수도 있습니다. 북·중·러 협력이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 확대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일선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시적으로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7 제3국 북한 선교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에는 온라인에서 성직자가 허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종교 전파 활동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는 등 온라인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미등록 가정교회에 대한 대규모 처벌 사건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로 알려져 온라인 선교 사역에 비상 경고가 울린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는 2024년 초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 중입니다. 어려운 해외 북한 선교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며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6년 1월 30일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북한선교와 통일 준비를 돕기 위한
제13회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소중한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및 시간

4월 6일 - 6월 2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진행 형식

온라인(Zoom) 강의 /

오프라인 기도회 및 아웃리치 진행

일정(예정)

주차	날짜 (매주 월요일)	강의 주제	강사
1	4월 6일	개회예배, 오리엔테이션	
2	4월 13일	북한의 정치와 사상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3	4월 20일	북한의 사회와 문화	최 설 (북한대학원대학교)
4	4월 27일	북한의 종교와 교회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5	5월 4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김바울 (북한지하교회출신 사역자)
6	5월 11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북방선교방송)
7	5월 18일	북녘을 바라보는 기도회 (DMZ)	
	5월 25일	휴강(대체공휴일)	
8	6월 1일	NGO를 통한 선교와 국제협력	정인수 (NKCCC)
9	6월 8일	국내정착 탈북민선교와 통일목회	정형신 (뉴코리아교회)
10	6월 15일	제 3국 북한선교 현장이야기	현장사역자1
11	6월 22일	제 3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현장사역자2
12	6월 29일	북한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성도	현장사역자3
	7-8월	비전트립	

회비

- 10만원(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체 수강의 경우 별도 문의)

접수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2월 23일 ~ 3월 31일)

문의

다니엘 선교사 (info@opendoors.or.kr / 050-6722-8448)

